

대중보도의 사회적효과에 관한 현대부르조아 《배양론》의 반동성

강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이 류포되어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고있으며 악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어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53페이지)

1970년대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서방세계의 보도계에는 대중보도의 사회적효과에 관한 여러가지 리론들이 류포되였다.

대중보도의 사회적효과문제를 론한 현대부르조아보도리론들가운데는 《배양론》이라는 것도 있다.

《배양론》은 미국의 부르조아어용학자인 게브너 등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진행한 조사연구내용을 리론화하여 1970년대에 발표한 대중보도의 효과에 관한 리론이다. 그것을 《배양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텔레비존방송을 위주로 하는 대중보도가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오래동안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대중보도의 사회적효과를 론의하였다.

그 기본전해는 1976년에 발표한 게브너의 글 《텔레비존이 있는 생활 : 폭력륵판》에서 제시되였다.

《배양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인식이 오랜 기간 사회적영향을 받는것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배양》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사회가 폭력과 범죄의 사회로 인정되는 원인을 텔레비존방송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의 보도선전적영향에서만 찾는 《배양론》은 철두철미 자본주의사회와 반동지배층의 정책의 반인민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작된 하나의 궤변에 불과한것이다.

현대부르조아《배양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단순히 개별적보도수단의 영향으로부터 사회범죄가 초래되는것처럼 현실을 심히 외곡하면서 온갖 사회악의 근원인 자본주의제도 자체의 반인민적본성에 대한 비판적분석을 회피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사회는 지배와 억압, 착취와 략탈, 멸시와 증오로 일관되어있으며 자본가계급의 범죄적인 생존방식에 맞게 모든 사회구조가 갖추어져있다. 그런데 《배양론》에서는 총기류, 폭력범죄와 같은 모든 사회악의 근원을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와 자본가계급의 반동적인 정책에서 찾는것이 아니라 단지 대중보도수단의 보도활동에서만 찾는것으로 그쳤다.

이것은 게브너를 비롯한 《배양론》조작자들이 내세운 기본과제와 그 《연구》의 결론만 분석하여보아도 잘 알수 있다.

《배양론》연구의 기본초점, 기본연구과제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텔레비존화면에서의 살인 및 폭력내용과 사회적범죄간의 관계를 분석하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사회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텔레비존화면에서의 살인 및 폭력내용의 영향을 분석하는것이였다.

《연구》결과로서 《배양론》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첫째로, 텔레비존화면에서의 폭력 및 살인내용이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유발효과》를 초래한다는것이다. 이 문제에서 그외의 다른 요인들은 없다고 하였다.

둘째로, 텔레비존내용속에 가득찬 폭력내용이 사회현실의 위험성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즉 범죄와 폭력 및 그로부터의 침해에 부닥칠수 있는 가능성정도에 대한 판단)을 증대시키며 또 텔레비존보도수단에 대한 접촉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사회적불안정감은 더욱더 크다는것이다.

이것은 현실속의 폭력범죄실태, 텔레비존에서의 폭력내용 및 자신이 처한 사회적환경의 위험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판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서 제시된것이다.

《배양론》에 의하면 당시 미국현실에서 한명의 미국인이 1주간에 폭력사건에 부닥치거나 말려드는 비율은 1%이하에 불과한것인데 3대텔레비존방송망이 1967—1978년의 기간의 《황금시간》(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내보낸 1 584편의 텔레비존극중 폭력내용을 담은것은 80%, 매개의 텔레비존극에서 나오는 폭력장면은 평균 5.2회, 폭력장면과 관련된 인물은 전체 등장인물수의 64%였다.

결국 사회현실에서는 범죄현상이 극히 적게 발생하는데 텔레비존극의 영향으로 하여 사람들이 범죄 및 살인현상과의 접촉률을 1%가 아니라 10%이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배양론》에서는 사회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식》이 객관적인 현실의것을 훨씬 초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게븐너를 비롯한 부르쥬아어용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대중보도수단들이 제시하는 《상징적현실》이 객관적인 현실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은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인식을 《서서히 배양》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와 폭력 등 사회악의 발생근원은 텔레비존과 같은 대중보도수단들에 있으며 그것들이 사회에 극히 적은 범죄, 폭력현상들을 지내 많이 내보냄으로써 객관적사회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그릇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론리가 《배양론》을 관통하고있다.

겉으로 보기에에는 타당한 론리인것같지만 이 론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미국의 반인민적인 사회제도나 반동정부는 범죄와 폭력, 살인 등 사회악의 만연에 아무런 련관도 없고 따라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사회여론이 바로 이러한 론리대로 유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작된것이 《배양론》인것이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폭력과 범죄가 나날이 만연하여 더는 회피할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었다. 폭력과 범죄의 방지에 관심을 돌리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사회여론의 압력이 미행정부에 가해졌다. 그 압력에 못이겨 미행정부는 폭력원인 규명 및 방비를 위한 위원회라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해결대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게븐너가 주관한 《배양연구》(혹은 《배양분석》)는 바로 정부산하기구로서의 이 기구의 지지와 후원속에 진행되었던것이다. 그런것만큼 《배양론》연구가 정부에 가해지는 사회여론의 압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방향 즉 정부에 대한 사회여론의 압력을 무마시키는데 충분한 《설득력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게 되었다는것은 구태여 론할 여지가 없다.

바로 그래서 《배양론》의 조작자들이 《미국본토배기학과》로 불리우기도 하는것이다.

현대부르쥬아《배양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근로대중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데 복무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대중보도에 대한 비판적분석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부르조아대중보도의 사회적효과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였다.

《배양론》은 왜 텔레비존방송을 비롯한 부르조아대중보도들에서 범죄보도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또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범죄내용이 《사회적범죄발생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오래전부터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로 증대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색정과 추문은 물론이고 범죄와 폭력과 같은 사회악을 공공연히 류포시키는 퇴폐적인 기사, 편집물들은 미국 등 자본주의나라들의 부르조아대중보도수단들에서 오래전부터 취급되어왔으며 그것으로 하여 오늘날에도 부르조아대중보도수단들은 총기류범죄를 포함하여 온갖 사회적범죄의 온상으로 비난받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비난이 아무리 오래동안 제기되어오고있다고 하여도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대중보도수단들의 보도선전에서 범죄관련편집물들의 비중은 감소된것이 아니라 《인기있는 편집물》로 인정되면서 더욱더 증가되고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대중보도수단들을 장악한 독점자본가들이 대중을 범죄의식으로 몰들임으로써 그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킬뿐아니라 범죄의 감행과 방비에 필요한 수단들에 대한 대중적수요를 더더욱 증대시키는것을 바라는데 있다.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범죄편집물들을 내보냄으로써 미국사회를 범죄와 공포의 사회로 만든다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명하자면 대중보도수단들의 소유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인가 하는것까지 밝혀내야 한다. 대중보도선전의 내용과 형식, 수법들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은 바로 대중보도수단의 소유자들과 그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있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배양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독점자본가계급의 정치적사환군들인 통치배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배양론》의 조작자들이 텔레비존방송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들의 범죄편집물취급에 대한 이러한 해부학적분석과 비판을 한다는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배양론》은 독점자본가계급의 정치적 및 경제적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선전도구로서의 부르조아출판보도물의 계급적본성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현대부르조아《배양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자본주의통치제도유지에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부르조아대중보도수단들을 《개혁》할데 대한 주장을 내세우고있는데서 표현된다.

게본너 등 《배양론》의 조작자들은 《대중보도는 현대사회의 〈이야기전달자〉일뿐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분간의 모순과 충돌을 완화시키는 〈용광로〉이며 이 의미에서 그것은 현존제도를 수호하는 〈문화무기〉이다.》라고 주장해나섰다.

이런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은 객관적현실과 차이나는 《상징적현실》(미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는 편집물)을 제공하는 대중보도를 《개혁》할데 대하여, 사회성원들속에 그 사회가 통일적전일체로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공통인식》을 수립할수 있도록 선전할데 대하여 주장해나섰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다른 부분간의 모순과 충돌》이란 다름아닌 지배계급인 독점자본가계급과 피지배계급인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충돌이며 이것은 근본적

으로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

대중보도가 《사회의 다른 부분간의 모순과 충돌》을 완화시키고 《사회성원들속에 그 사회가 통일적전일체로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공통인식〉을 수립할수 있도록 선전할데》 대한 《배양론》의 주장의 진의도는 명백하다. 그것은 대중보도가 자본주의사회를 비화하고 그 영상을 흐리게 하는 선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독점자본가계급의 반동사상을 전사회에 퍼뜨리고 근로대중을 자본주의제도에 더 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더욱 강화하라는것이다.

《배양론》만이 아니라 다른 부르쵸아보도리론들도 하나같이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중보도에 대한 계급적리해관계, 자본주의사회제도의 유지공고화에 복무하는 부르쵸아대중보도의 반인민성과 반동성을 은폐하는것을 근본전제로 하여 조작되였다.

독점자본가계급과 반동지배층의 요구와 비위에 맞게 조작된것으로 하여 부르쵸아보도리론들은 어느것이냐 다 궤변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리론에 교묘하게 감추어져있는 반동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것을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사상전, 언론전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